

일본 미술 표현으로 보는 뱀

일본 열도에 있어서 뱀 조형을 고찰하려면 전파론인가, 원형론인가의 논의에 입각하여 대체로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음양오행설이 전파되기 이전의 조형. 구체적으로는 조몬 토기 시대로부터의 토우의 묘사, 그리고 신토_{神道} 의례에 관련된 조형이 문제 가 된다. 이어서 십이지의 사변_{思弁}(순수한 논리적 사고만으로 사물을 인식 하려는) 속에서의 뱀의 위치 설정. 여기서 동시에 중국 기원의 용이나 인도 기원의 나가뱀과의 혼합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토착'의 신토_{神道} 추상 개념은 불교로부터, 우주론은 『주역』으로부터 참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과 뱀을 어떻게 변별하느냐는 도상_{圖像}으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팔 쪽에 준거하면 용과 뱀은 함께 손_巽, 방위로서는 남동이며, 상징적 기호론상으로도 변별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상사적 골조가 나온

후 뱀의 묘사가 세속화와 더불어 어떠한 변용을 이루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에도 시대 후반의 상상력이 문제가 된다. 전기^{傳奇}적 문학의 삽화에 기원을 가지는 조형이 많지만, 거기에는 동시에 유럽 원산의 외래산 뱀 도상이 유입된다.

본 시리즈의 의도에 비추어 이하에서 일본이라고는 하나 회화와 조형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민속이나 문학에 관계하는 화제는 극히 배제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통의 뿌리를 지적하는 것은 논술상에서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뱀의 조형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에 이르는 지역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고대 지중해권과의 대비나 나아가 서양 세계에서의 뱀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비교가 불가결하게 된다.

조몬 토기의 뱀, 하니와埴輪의 뱀, 그리고 시메나와往連繩

안도지^{安道寺} 유적 출토의 유공악부토기^{有孔鍔付土器}를 보자. 항아리의 만곡부^{灣曲部} 중앙에 땅리를 튼 뱀이 조형되어 거기에 낫처럼 굽은 검수^{鎗首}



를 쳐든 두부^{頭部}가 얇은 부조로 새겨져 있다. 조몬 시대 중기에는 특히 뱀 조형이 많이 알려져 있다. 카미야마다^{上山田} · 텐진야마^{天神山} 양식의 조몬 토기(토야마 켄^{富山県} 매장문화재센터)에는 입 가장자리에 새끼줄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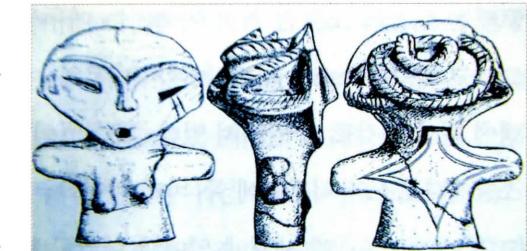
'유공악부토기' (안도지 유적, 조몬 중기, 아마나시켄 고고박물관)

빈출하며 거기에는 명확하게 뱀 머리 부분을 분별할 수 있다. 토기의 동체 부분에도 더러는 꾸불꾸불하고, 더러는 소용돌이치며, 더러는 S 자를 그린 문양이 점토를 둘우어 종횡으로 새겨져 있다. 그 모든 것을 뱀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얕히고 이어진 나선운동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모습을 가장 지체 없이 영상으로써 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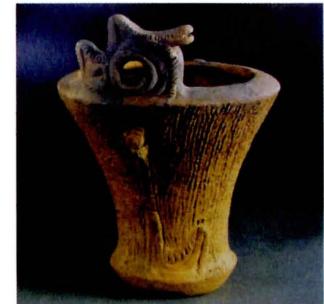
이 뱀의 교합^{交合}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蛇』(1978)의 저자, 요시노 유코(1916~2008)는 뱀 두부^{頭部}의 형태가 무엇보다도 남근을 연상시키는 것을 강조하며 '조몬 토기의 뱀이 약동하는 것은, 뱀에 의해서 상징되는 조몬인의 성에 대한 정념의 표현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며 단언한다.

토기에서 토우로 옮아간다. 조몬 중기 전반, 나가노켄^{長野県} 토나이^{藤内} 16호 주거지에서는 두부^{頭部}에 뱀을 실은 토우가 발견되었다. 머리를 묶은 상태로도 보이지만, 그 다발의 첨단에는 두 개의 낫처럼 굽은 겸수^{鎗首}가 보이므로 뱀을 여성의 머리 부분에 신는 등의 의례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층 더 시대를 내려와 고분 시대의 토용, 하니와^{埴輪}를 보자.

군마켄^{群馬県} 미사토마치^{箕郷町} 카미시바^{上芝} 고분^{古墳}으로부터 출토된 토용의 무녀는 연속 삼각문의 어깨띠, 허리띠, 옷 등을 몸에 두르고 있다. 타이완



'뱀을 머리에 얹은 토우'(토나이 16호 주거지, 조몬 중기 중엽, 이자리 고고관^{井尻考古館})



'사체파수부' 鈍体把手付深鉢' (나가노켄 長野県 토가리이시^{大石} 유적, 조몬 중기, 치노시 토가리이시 고고관^{茅野市尖石考古館})



'하니와 무녀' (군마현 미사토마치 카미시바 고분 출토, 6세기,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대지모신' (크노소스 궁전 출토, 이라클리온Heraklion 고고학박물관)

의 파이완족 등에도 뺨리를 튼 뱀 같은 삼각문에 의한 조각이 표현되고 있다. 전제의 요시노 유코는 이로부터 유추하여 일본 토용의 무녀도 원래는 뱀을 감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두발頭髮이 뱀에서 생긴 괴물이라면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가 연상된다. 게다가 환경고고학자 야스다 요시노리安田喜憲는 『蛇と十字架』(1994)에서 고대 그리스에 선행하는 미노아 문명에 대해 언급한다. 지중해 크레타의 신궁전 시대(기원전 1700~1450년경)의 크노소스 궁전에서는 뱀을 가슴이나 어깨에 걸친 대지모신大地母神, 혹은 양손으로 소형 뱀을 두 마리 거머쥐고 팔을 펼치는 대지모신상이 출토되고 있다. 이라클리온의 고고학박물관의 명품으로, 신궁전 건축군의 터에서 중공中空 기둥의 측면에 구장臼狀의 용기가 세 개 정도 튀어나온 기묘한 유물이 발견되고 있다. 아마도 뱀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서도 뱀 신앙의 존재가 증명된다. 파르테논 신전에 모셔진 여신 아테네는 메두사의 방패를 손에 쥐고 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대제大祭에서 난무하는 여성 무녀巫女 마이나데스가 뱀에 빙의한 것도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의학의 신으로 존숭尊崇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두 마리 뱀이 서로 얹혀 있는 것도 유명하다. 고대 에게Aegean 해 세계에 있어서 이러한 뱀 신앙의 편재偏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찍이 삼림森林 시대의 파르테논 신전의 하후破風(합각



'오시메나와' (이즈모타이샤 出雲大社 배전 입구, 시마네켄 烏根県 이즈모시 出雲市)

머리에 대는 삼각형의 장식판)에는 거대한 대사大蛇가 장식되어 있었는데, 극동의 일본에 있어서는 신토神道의 신사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다름 아닌 시메나와往連繩일 것이다.

신토의 배전拜殿에 내걸렸던 시메나와. 이를 교합하는 자웅의 뱀으로 보는 해석은 이와타 준이치岩田準一『鳥羽志摩の民俗』등이 제기하고 있다. 뱀의 교합이 결연과 풍양의 비유인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즈모타이샤 出雲大社나 사타진자佐多神社의 용신은 뺨리를 튼 뱀이며, 야마토大和의 미와야마三輪山는 신체神体인 미巳, 즉 뱀이 7회전 반 한 모습으로서 신앙되고 있다. 게다가 시가켄滋賀縣 히가시아자이군東淺井郡 · 슈후쿠지集福寺의 오코나이제祭에서 정월의 이와이젠祝膳에 차려지는 하나모치花餅가 뱀알과 아주 비슷하다. 이외의 예를 포함하여 검토한 요시노 유코는, 가가마모치鏡餅가 뱀 의례에 유래한다는 가설을 전개하고 있다. 신사 건축의 원형이 되는 고상식高床式의 건물은 동남아시아에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현무' (키토라 고분, 7세기 말~8세기 초, 나라켄 아스카무라)

같은 동남아시아에 퍼져나간 경작 문화권의 풍양의례 전반과 뱀 신앙의 계보라는 것이 어떤 경위로 폭주하게 되는 것일까. 복희 伏羲 · 여와 女媧 의 도상에서도 인면人面 · 사신蛇身의 괴수가 꼬리를 섞는다. 남방의 맥오족 기원과 중국의 혼효混淆인 것으로도 추측되고, 멀개는 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만, 한대의 작례作例가 남는다. 한편, 중국 기원의 성수聖獸로서는 현무玄武가 알려진다. 동쪽의 청룡, 남쪽의 주작, 서쪽의 백호와 더불어 북쪽의 수호를 맡는다. 거북이와 뱀이 합체한, 혹은 거북이에 뱀이 엉겨 붙은 도상이지만, 나라켄 奈良県 아스카무라 明日香村의 키토라 고분, 다카마 츠즈카 高松塚 고분의 현실 玄室 북쪽 벽에 선명한 유품이 발견되어 있다.

음양오행설 · 불전위전 佛典爲典에서 노멘 能面으로

불교 전래(538)와 함께 용이 보급된 헤이안 平安 시대(8세기 말~12세기 말) 이후에는 뱀 도상과도 혼효混淆한다. 이윽고 거기에는 불교의 여인 금기가 현저하게 그림자를 떨어뜨리게 된다. 불교 이전의 뱀은 성적인 신앙과 결합되어 다산 · 풍양 혹은 탈피에 의한 재생을 관장하며 신비로운 신성神性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뱀은, 불교의 정착과 함께 사악한 원한에 지배된 여성의 죄장 罪障을 구현하는 존재로 변질하게 된

다. 여기서는 민속이나 문학은 생략하고 조형미술 표현으로 한정하지만, 무로마치 室町 기(14, 16세기)에 성립된 요코쿠 謠曲에도 뱀이 등장한다. 무엇보다 저명한 예는 '도조지 道成寺'. 무대 후반에 배우가 종에서 나오는 장면에 쓰는 오모테面는 '자蛇'로 불린다. 바바 아키코 馬場あき子의 『鬼の研究』(1971)에 의하면 한나般若의 오모테가 '한자半蛇'라고도 칭해지는 데 대하여 '뱀'은 '본성'이며, 연모라는 정념의 격렬한 불길에 의해, 종 속에 숨은 남자를 태워 죽이는 뱀의 본성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의상에도 '린형鱗型'이라고 불리는 삼각형의 연속 문양이 선택되지만, 이것은 뱀 비늘 의장이라고 한다.

'도조지 道成寺' 설화의 기원은 『大日本國法華驗記』 권하 제129에 보이는 '紀伊國牟婁郡惡女', 그리고 『콘자쿠모노가타리슈 今昔物語集』 각권14 제3 '紀伊ノ國道成寺ノ僧寫法華救蛇語'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이고 醍醐 천황의 치세에서 일어난 일(926년경)로 여겨져 도사미츠시게 土佐光重에 의한 '도조지엔기에마카 道成寺緣起繪卷'의 도상이 저명하지만, 타죽은 미남 승려에게는 『겐코샤쿠쇼 元亨釋書』에서 '안진 安珍'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 연정에 미쳐버린 뱀에게는 아야초리조루리 操淨瑠璃 '道成寺現在蛇鱗' (간포 寛保 2년=1742)에서 '기요히메 清姫'라는 이름이 주어져, 이후 설화는 '안진 · 기요히메' 전설로 유포된다. 요괴화로 저명한 토리야마세키엔 鳥山石燕(1712~1788)의 『今昔百鬼拾遺』에도 「道成寺鐘」이라는 그림이 있다. 일본 전통음악의 일종인 기다유부시 義太夫節에서는 '日



'뱀' [노가쿠먼 能樂面 요코쿠 '도조지'
(무로마치 시대 후기에 성립)에 이용]



(전博) (토사미조시계土佐光重 道成寺緣起繪卷, 15세기 초)



양부지옥 「10계도 十界圖」(부분, 전리자판본 禪林寺本, 16세기)

高川'라는 마이舞로 알려지며, 우키요에浮世繪에도 요슈치카노부楊洲周延에게 「竹のひと節・日高川」, 근대에 들어서도 고바야시고케이小林古徑의 일본화「日高川」등으로 계승된다.

호넨法然의 『無量壽經釋』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고야산高野山, 히에잔比叡山, 소후쿠지崇福寺, 긴푸센지金峰寺, 다이고지醒醐寺 등 모두 여인금제女人禁制였지만 오직 쿠마노熊野만이 여성의 순례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도조지' 설화가 쿠마노고도熊野古道에 연관된 토지를 기원으로 하는 것도 쿠마노으로의 여인 참예와 무관하지 않다. 무로마치 시대 후기부터 근세 전기에 들어서는 쿠마노비구니熊野比丘尼로 불리는 유행遊行의 여성 종교자들이 지옥극락을 그림으로 풀어주는 에토카繪解き를 하고, 권진에 힘썼던 것이 알려져 있다. 그녀들이 이용한 패도掛圖는 「熊野觀心十界圖」로 불리는데, 그 지옥도는 고대 아래의 『왕생요집往生要集』 등과는 달라 위경偽經 『십왕경 十王經』이나 일본에서 작성된 『佛說地藏菩薩發心因緣十王經』 혹은 『血盆經』 등의 위경의 유행을 배경으로 제작된, 말하자면 '여성 전용' 그림이었다. 거기서 뱀 도상으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양부지옥兩婦地獄'. 한

남자를 연모하는 두 여자가 뱀으로 화해 엉겨 붙는다. 두 마리 사녀蛇女에게 휘감긴 남자는 엉겨 붙은 뱀에게 몸통과 팔을 빙빙 감기고 단단히 묶인 채 포박되어, 벌을 받고 있는 악인과 같은 모습이며, 그 얼굴을 두 마리 사녀의 혀가 질투의 불길로 책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혈의 부정함, 즉 '케가레穢れ'를 응징하는 『계츠본쿄血盆經』 유래의 '혈지지옥血の池地獄' 도상에도 똑같이 뱀으로 화한 여성이 몇 명이나 빠져 있다.

우키요에浮世繪 속의 뱀

이러한 중세의 여지옥도女地獄圖에 주목한 인물이 에도 시대의 희극작가로 알려진 산토교덴山東京(1761~1816)이었다. 교덴은 우키요에 스승으로서는 기타오마사노부北尾政演로도 알려져 있고, 교카렌狂歌連으로서도 이름을 남긴다. 당시 희극작가와 우키요에 화가는 밀접하게 분업하며 에Hon繪本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동시대인이기도 한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齋(1760~1840)에게는 『하쿠모노기타리百物語』(1830)에 실린 「집념しうねん」이 알려져 있다. 위패에 매달리는 구렁이를 그렸다. 타카다마모루高田衛가 『女と蛇』(1999)에 인용한 나카무라 유키히코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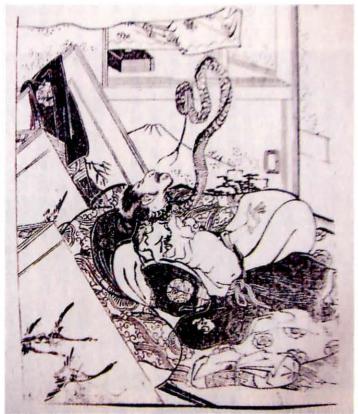
가츠시카 호쿠사이, 「집념」『百物語』(1830년 완결)



타카다마모루, 「뱀」『畫本蟲撰』(1788)



가츠시카 호쿠사이, 「사와의 원념」
류우데이타네하코(柳亭種彦), 『霜夜星』(1807년 출판)



蹄亭北馬, 「藤太の顔を食らう」
교쿠테이마카인(柳亭馬琴), 『勸善常世物語』(1806년 출판)

교덴 京傳이나 호쿠사이 北齋 보다 몇 살 연상으로는 우타마로 歌磨 (1753~1806)가 있다. 그의 『에흔무시 에라미』 畫本虫撰(1888)에는 방울벌레나 귀뚜라미 등의 곤충과 함께 도마뱀이나 뱀이 그려져 있다. 호쿠사이는 류 우테이다네하코 柳亭種彦의 처녀작, 요 미흔讀本 『霜夜星』(1807)에 삽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 뱀은 명확하게 우타마로를 의식하고 있다. 우타마로가 도마뱀을 노리는 구렁이를 난학 蘭學 취미의 박물학자도 압도할 묘사력으로 그렸다면, 호쿠사이는 개구리를 삼키려는 율모기를 과장해서 그린다. 연속 삼각문이 특징적인 뱀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으나 이 뱀은 권차 勸次를 연모하는 오사와 お澤의 원한이 변한 것으로, 간사한 꾀를 낸 남자를 원망한 소행으로 알려진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 사실적인 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이라는 인상을 풍기는 괴이를,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게 하는 삽화 描繪가 목판을 구사해 경이

村幸彥의 표현을 벌린다면, 중세에 있어 성성聖性을 상실한 '뱀'은, 악의 장소 惡場所를 중심으로 근세에 강하게 계승되어 '자연적 전질轉質'을 이루었다. 「집념」은 '사신 蛇神의 가장 근원적인 위치가 사망자의 수호, 황천국의 수호신이었다'는 것을 그 세속적인 표현 속에서 부활시켜 보여준다.

교덴 京傳이나 호쿠사이 北齋 보다 몇 살 연상으로는 우타마로 歌磨 (1753~1806)가 있다. 그의 『에흔무시 에라미』 畫本虫撰(1888)에는 방울벌레나 귀뚜라미 등의 곤충과 함께 도마뱀이나 뱀이 그려져 있다. 호쿠사이는 류 우테이다네하코 柳亭種彦의 처녀작, 요

미흔讀本 『霜夜星』(1807)에 삽화를 그리고 있는데, 그 뱀은 명확하게 우타마로를 의식하고 있다. 우타마로가 도마뱀을 노리는 구렁이를 난학 蘭學 취미의 박물학자도 압도할 묘사력으로 그렸다면, 호쿠사이는 개구리를 삼키려는 율모기를 과장해서 그린다. 연속 삼각문이 특징적인 뱀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으나 이 뱀은 권차 勸次를 연모하는 오사와 お澤의 원한이 변한 것으로, 간사한 꾀를 낸 남자를 원망한 소행으로 알려진다.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 사실적인 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이라는 인상을 풍기는 괴이를,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게 하는 삽화 描繪가 목판을 구사해 경이적인 세밀함으로 복제되게 된다. 회극작가도 화가의 역량에 화답하며 실록에 각색을 더하여 괴담을 엮어낸다. 원래 뱀은 신화시대 이후, 금기를 감추고 있는 존재였기에 금기라는 숨겨진 세계를 상기시키려면, 뱀은 그럴듯한 주제가 되었다. 분카 文化 5년(1808)에는 뱀 등을 신체나 손발에 감는 '蛇など身體手足に巻く' 취향을 금지하는 명령이 책방이나 도매상을 통하여 회극작가들에 게도 전해졌다. 여기에서도 뱀을 그리는 요 미흔讀本이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령 직전의 작품으로 다기자와바킨 瀧澤馬琴의 『勸善常世物語』가 있다(초판 간기는 1805년). 미모의 악역, 겐토타 源藤太는 인과응보로 뱀에게 시달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겐토타는 벌레에게 목을 물린다. 그 상처 자국이 부어 화농하게 된다. 낫지 않아 거울을 통해 보니, 상처는 작은 뱀의 소굴이 되어 있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뱀이 뇌 골수 근처에 숨어, 틈을 타 나타나서는 얼굴을 핥는다. 점차 뱀은 퍼진 상처를 핥기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혈을 다 빨아 먹고는 상처와 함께 남자의 얼굴 살을 먹기 시작한다. 마침내 남자의 목에 몇 겹이나 얹힌 뱀은 토티를 호흡 곤란에 빠뜨리고, 그 두엽 頭蓋을 물어뜯고, 왼쪽 눈을 파기 시작하는데, 오른쪽 눈을 파먹으려는 찰나에 마침내 토티는 숨이 끊어진다. 아마도 진행성 매독을 묘사한 것이겠지만, 이 처참한 장면을 그린 화가는 테사이호쿠바 蹄齋北馬, 교훈 이야기를 구실로써 무참한 잔학 취미를 전개하는 취향이라고 할 수 있다. 뱀이 촉루에 들러붙는 의장은 유럽에도 볼 수 있는 괴기 취미지만, 호쿠사이나 호쿠바 등도 도해 圖解하게 된다.

이나가 시게미 자음 | 이향숙 옮김

문화로 읽는 십이지신 이야기 뱀

초판 1쇄 인쇄 2011년 10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10월 31일

책임편집 이어령 | 기획위원 최규복 송명식

펴낸이 정중모 | 펴낸곳 도서출판 열림원

편집장 김도언 | 편집 이성근 | 디자인 이기쁨

마케팅 남기성 | 홍보 장혜원 | 제작 윤준수 | 관리 박정성 김은성 조범수

등록 1980년 5월 19일(제406-2003-026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2길 7-0

전화 02-3144-3700 | 팩스 02-3144-0775

홈페이지 www.yolimwon.com | 이메일 editor@yolimwon.com

트위터 twitter.com/Yolimwon

ISBN 978-89-7063-710-5 03380

*이 책의 저작권은 유한김벌리와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에 있습니다.

이 책의 글과 그림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십이지신十二支神' 시리즈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이해를 돋고자

유한김벌리의 사회공헌연구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